

전주매일

▶ 매일 INDEX



3면

"전북 소외 대광법, 지방소멸 계속"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음 7월 24일) 제357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산업 육성

전북자치도, 완주군·화학융합시험연구원·우석대와 '맞손'
2028년까지 자원순환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우석대학교는 업무협약을 맺고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26일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김현철 KTR 원장,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등 기본사항에 대한 합의를 목적으로, △전북자치도와 완주군의 인허가 및 행·재정적 지원 △KTR, 우석대의 사업 세부계획 수립·이행,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역 우수인력 채용 등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석자들은 협약을 통해 수소차 폐연료전지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자원순환형 경제를 구현하고, 지역경

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신청하고 7월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전북자치도가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지난 7월부터 오는 28년 12월까지 4년 6개월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 2 단계에 구축될 예정이며, 국비 100억원, 전북자치도와 완주군이 각각 45억원씩, 주관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2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참여해 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시험평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관련 산업을 육성

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특화센터 구축과 함께 완주군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연료전지 법정검사 기관을 보유해 국내 최초 one-stop 연료전지 인증도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KTR과 함께 기업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수소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소 분야 우수한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수소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완주=염재복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도·완주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우석대 업무협약 체결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김현철 KTR원장,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갑질 근절·상호 존중 조직문화 규정'

전북자치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훈련 제정
교육감·교직원의 책무, 갑질 전담책임관 지정 등 담야
상호 존중 의미 담아 9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 지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국 최초로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 훈련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 훈련에는 △교육감과 교직원의 책무 △갑질전담책임관 지정 △갑질 예방교육 실시 △상호 존중 행위의 정의 △상호 존중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상호 존중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행위, 친절하게 응대하고 배려의 정신을 갖는 행위, 올바른 호칭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

하지 않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 폭언 및 폭력을 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상호 존중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1=1)로 매년 2학기 첫 번째 11월 9일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직원의 공감과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9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해 각 기관과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상호 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제12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금요일
2024. 10. 4. - 6.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아파! 재밌는거, 위대! 맛있는거~

주최 완주군 주관 와일드&로컬푸드축제추진위원회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하이텍고, 내년
수소에너지고 전환
수소분야 특성화고 운영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북하이텍고등학교(교장 한천수)가 내년에 (가칭)수소에너지고등학교로 전환된다.

26일 전북하이텍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특성화고 정책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국 최초 수소 분야 특성화고로 운영된다. 이에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학과를 폐과하고 △수소융합과(수소산업·경제) △에너지융합과(2차전지, 에너지) 2개 학과를 신설했으며, 기숙사 신축 및 최첨단 실습실 구축을 통해 내년부터 72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수소에너지고는 국가 및 지역의 전략산업인 △수소(완주수소국가산업단지) △2차전지(새만금 2차전지특화단지) △반도체(경기, 충청) △자동차(완주산단 등) 분야 신기술·신산업 정규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성장과 진로를 지원하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두 축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2025학년도 신입생은 △급식비(3식)·기숙사비·특별활동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3무 지원 △기업 현장에서 수업을 받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산학일체 도제형 교육과정 운영 △졸업 후 취업시 약 1,250만원을 취업장려금(정착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원주형 취업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은성 기자

7월 호우피해 개선복구 추가 반영

전북자치도, 중대본 심의 의결 따라 도내 4곳 1143억원

전북자치도는 7월 8~19일 호우피해 복구계획이 지난 23일 중대본 심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내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시, 완주군 지역의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 4개소 1,143억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익산시 산북천, 완주군 장선천, 성북천, 괴곡동천 주변에 하천 월류, 제방 붕괴 등으로 주택·상가 침수 및 하우스 붕괴로 인해 완주군, 익산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익산시-완주군에서 7월 18일에서 24일까지 행안부-환경부 등이 참여한 중앙합동 피해 조사에서 기능복구가 아닌 호우피해 발생 원인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지방하천 4개 사업의 개선복구 사업이 반영되도록 현장 안내 및 부처 방문 설명 등 지속 건의했고, 중대본 심의(8월 23일)에서 전체가 반영됐다.

이번 개선복구 사업에 반영된 지방하천은 당초 하천 정비 기본계획 등에 따라 도비, 시군비 등 지방비를 투입해 순차적으로 하천 정비를 실시해야 하나, 호우피해 개선복구 사업비로 1,142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국비 572억 원을 확보해 지방비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

익산시 산북천 지역은 토석류 유입 및 통수단면 부족으로 제방 및 호안 유실 0.37km, 농경지 유실 2.5ha 등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업비 334억9,000만

원을 투입해 제방 및 호안 정비 5.8km, 교량 4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완주군 장선천 지역은 하천 폭 협소 및 통수능력 부족으로 하천을 월류하여 제방 및 호안 유실 3.2km, 주택 및 상가 침수 180동 등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업비 344억9,000만원을 투입해 제방 및 호안 정비 4.9km, 교량 1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완주군 괴곡동천 지역은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제방 및 호안 유실 3.5km, 주택 침수 27동, 농경지 침수 8.8ha 등 2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업비 249억원을 투입해 제방 및 호안 정비 3.9km, 교량 4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완주군 성북천 지역은 토석류 유입 및 통수단면 부족으로 제방 및 호안 유실 1.1km, 농경지 유실 11.3ha 등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업비 214억원을 투입해 제방 및 호안 정비 4.8km, 교량 3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7월 집중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익산시, 완주군 지역의 개선복구 사업이 반영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군이 협력하여 호우피해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다가를 태풍에 대비해 재해위험지역, 7월 호우피해 지역 등에 대해 예방 및 정비를 지속 실시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